

2) 총란음성자의 치료약 복용율은 70.8%였고, 약복용후에 개인적으로 결과확인을 위한 검사를 해본 사람은 3.1%에 불과했으며 또 치료약을 복용한 후에도 민물고기를 계속 생식한 사람이 29.4%나 되었다.

이상을 종합해볼때 형산강 하류에 위치한 포항지역은 간흡충증의 유행지로 판단된다. 따라서 계속적인 조사를 실시하고, 치료약을 투여하여 감염자의 최소한으로 감소시켜야 한다. 무엇보다도 피내반응 양성자중 상당수가 대변검사에 불응하였고 무료로 약을 공급해도 70.8%만이 약을 복용했으며 29.4%가 약을 복용하고도 민물고기를 계속 생식하는 점 등을 보아 적절한 보건교육이 검사 및 치료전반에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

산업장 근로자들의 보건관리 실태와 간호역할 기대에 관한 연구

최신의학, 제32권 제2호, pp. 83~88, 1989.

강 현 속.

1. 결론

1987년 10월 7일~10월 30일까지 산업장 의무실과 산업보건 간호사가 있는 포항시의 일 종합제철산업장의 근로자 300명을 포집하여 그중 283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.

자료분석은 S. P. S. S로 전산처리하였으며 백분율, 평균차 표준편차 Pearson 상관계수 등으로 분석했다.

A. 대상자의 보건관리 실태

1) 건강상태

①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때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산업장 의무실(56.5%)이 가장 많았다.

② 1년간 의무실 이용횟수는 2개월에 1회(62.9%)가 가장 많았다.

③ 산업장 근무 이후 경험한 자각증상은 소화불량(30.7%)이 가장 많았고, 다음은 청력감퇴(15.2%), 감기(14.5%), 기관지염(8.5%), 두통(7.4%), 피부병(4.9%), 불면증(3.9%), 고혈압(1.8%)등의 순이었다.

④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각은 보통(63.6%)이 가장 많았으며, 양호(23.7%), 불건강(12.7%) 순이었다.

2) 산업재해

재해경험 유무에서는 있는 사람이 69명(24.4%)이었으며 69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한 결과 '부주의'(58.0%)가 가장 많았고, '안전수칙의 무시'가 18.8%로 나타났다.

3) 작업환경

① 건강과 관련된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'불안하다(61.5%)'가 가장 많았고, '보통(21.9%)', '불안하지 않다(16.6%)'의 순이었다.

② 작업환경에 대한 불안요인은 '분진(42.1%)'이 가장 많았고, '소화기 장애'(21.4%), '소음(11.4%)', '시력장애(5.0%)', '정신적 스트레스(5.0%)', '수면장애(2.1%)', '피부(1.4%)'순이었다.

③ 환경문제로 인한 이직의사는 '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으나 생각중'인 사람(50.5%)이 가장 많았고, '이직계획중'인 사람이(5.7%)였다.

B. 대상자의 간호역할기대

대상자의 간호역할기대에 대해서는 평균이 4.121로서 '의사의 지시를 신속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과 적절한 간호수행'(4.671)이었고, 가장 낮은 항목은 '근로자의 보건과 위생보호구 착용지도'(3.597)이었다.

2. 제언

산업장 근로자들의 보건관리 및 간호역할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.

사업장의 보건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

대한간호, 제28권 제2호, 1989.

김 난 실

1. 결론

1988년 8월 26일부터 1988년 10월 7일 사이에 경기도내(성남시, 광주군)의 108개 사업장(제조업사업장보건담당자)를 대상으로 하였으며, 본 연구자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작성한 설문지를 연구도구로 하여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에 따라 백분율, Chi - Square test (χ^2 -test), 5점척도, mean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1) 사업장, 업종별 보건담당자의 선임여부를 보면, 안전관리책임자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선임돼 있었으며 안전관리자는 전기·전자·제지·인쇄·출판업 중에서 100%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보건관리자는 전체 사업장 중 36.11%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것도 문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